

# 지스트 물리·광학과학과 고도경 교수, 한국광학회 제30대 회장 취임

- 3월 1일부터 1년간 임기... "차세대 광과학기술과 융합연구 선도"



▲ 지스트 물리·광학과학과 고도경 교수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물리·광학과학과 고도경 교수가 한국광학회 제 30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내달 1일부터 1년간의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.

1989년 창립된 한국광학회는 물리·전기·전자·기계·소재·바이오 등 다양한 학문 융합을 통해 우리나라 광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이다. 현재 8,000여명의 회원들이 양자전자분과를 비롯한 9개의 분과를 중심으로 광학과 광기술 분야의 학문 및 광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, 17개 국외학회와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.

고도경 교수는 극초단 레이저 개발과 초고속 비선형 분광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 및 책임연구원을 거쳐 2003년부터 지스트 물리·광학과학과에 재직 중이다. 지스트 대학장 및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과 기초 연구의 진흥에 크게 기여해왔다.

고도경 교수는 "인공지능과 초연결로 대변되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, 차세대 광과학기술과 융합연구를 선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